VOICEYE
KOR
voiceye.com

손으로 보는 세상

2015 April
vol. 177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CONTENTS

02

03
점자로 말해요
벚꽃

04
테마기획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06
인터뷰
손끝으로 만드는 마술, 시각장애인 마술사 김병휘 님을 만나다!

08
정보 PLUS
시각장애의 원인
: 녹내장
월드 리포트
: 영국 시각장애인 여권 발급 거절당해 논란

09
함께 사는 이야기
제2의 행복한 삶
김미화
(시각장애인 1급 · 경상남도 김해시)

10
포커스
시각장애학생이 만드는 코끼리!

11
뉴스앨범
1. 시각장애인 요리교실
2. 스포츠 여가지원 교실

12
안내
시각장애인에게 의자를 권할 때
후원안내

손으로보는세상 2015년 4월 177호
발행일 2015년 4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진선
주소 150-170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T 02.6925.1114 F 02.6925.11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그래픽오션 02.3422.5612 www.graphicocean.co.kr 캘리 임캘리 www.imcalli.com

VOICEYE
voiceye.com

4월이 되면 벚꽃이 만개해 전국 곳곳에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4월에는 따뜻한 봄기운 속에서 하얗게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며
봄을 만끽하세요. 벚꽃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벗꽃

읽기형 ①② ③④ ⑤⑥

점자일람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모음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약자	열	영	옥	온	옹	운	울	은	을	인	것		ㅆ받침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장부호	.	?	!	,	–	~		•	“	”	‘		’		
문장부호	:		;		줄임표 (· · ·)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영어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대문자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ㅈ,ㅊ,ㅆ,ㅉ]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엉'으로 바뀐다.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4월 20일은 무슨 날일까요? 4월 20일은 바로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 입니다.

KOR VOICEYE
voiceye.com

그렇다면 장애인의 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981년 UN총회에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1981년에 정부에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 당시에는 정부의 법정기념일 축소 방침에 따라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했었는데요. 이후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1991년부터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3조 규정에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관을 설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설정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장애인의 날은 왜 4월 20일일까요?

4월은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20일은 4월에 있는 다른 기념일들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또한 4월 20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인 경우 기념행사가 4월 18일에 진행되는데요. 4월 19일에 진행되지 않고 18일에 진행되는 이유는 4 · 19 혁명 기념일 행사와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장애인의 날 공식 행사에서는 장애인 인권 헌장을 낭독하고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장, 포장, 표창이 수여됩니다.
특히 1997년부터 '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해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4월 20일부터 1주일을 장애인 주간으로 설정하여 장애안 당사자 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념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손끝으로 만드는 마술, 시각장애인 마술사

김병휘 님을 만나다!

몇 년 전, SBS 스타킹 프로그램에서
'영광의 마술왕'을 선발하기 위해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마술사들이
출연했습니다.

그 중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놀라움을
안긴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 마술사
김병휘 님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마술을
선보이는 마술사 김병휘 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시각장애인 마술사 **김병휘 님**

어떤 계기로 마술을 접하게 되셨나요?

벌써 마술을 한지도 9년이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마술을 접하게 되었어요. 9년 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산성복지회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마술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2달간 진행됐어요. 시각장애인은 저 한명이었고 지적장애인 9명과 함께 수업을 들었어요. 함께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수업을 끝까지 끝마치지 못했어요. 이후에 마술 공연으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지금 이 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시각장애인 마술사로 알려졌는데요. 마술을 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어렵죠. 사실 마술이라는 것이 눈으로 봐가면서 해야 하는데 저는 손으로만 해야 하니까요. 한 가지 마술을 위해 순서를 다 외웁니다. 방향도 그렇고요. 방향 같은 거야 보는 사람은 상황에 맞게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볼 수가 없으니까요. 또 마술에 쓰는 소품에 저만 알아 볼 수 있도록 점자스티커를 붙이거나 구멍을 뚫어놓기도 합니다.

SBS 스타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마술실력을 보여주셨는데요. 주위에서 어떤 반응이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 방송을 보고 알아봐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주위에서 알아봐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술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거나 인상적이었던 적이 있나요?

어린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술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들이 "진짜 안보여요?", "보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나도 마술 하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또 마술공연이나 안마로 봉사활동을 다니는데 봉사를 하다보면 보람을 느끼고요.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마술을 배우고 나서 마술공연으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2001년에 서울맹학교에서 안마를 배웠는데 안마봉사를 알게 되어 2003년부터 매년 소록도를 찾아 안마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마봉사를 오래하셨네요?

네. 매년 가다보니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2003년에 처음 소록도를 갔을 때는 배로 갔었는데 요즘은 다리가 생겨서 차로 갈 수 있어요. 또 소록도에 약 600명이 계시는데 초반에 뵈었던 분들이 돌아가신 경우도 많고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이 궁금합니다.

시각장애인 중 마술사는 저 혼자뿐입니다. 앞으로 다른 시각장애인 마술사와 함께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중도시각장애인으로 20대는 거의 집에만 있었는데 재활교육을 받고 마술을 배우면서 소심했던 성격이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 원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마술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지금까지 전국일주를 3번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꿈입니다.

시각장애의 원인

녹내장

우리 몸에 혈압이 있듯 눈에도 압력이 있어 이를 안압이라고 합니다. 녹내장은 안압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아져 시신경에 손상을 주고 시야가 좁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안압을 조절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면 결국 시력을 잃게 됩니다. 안압은 주로 방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방수란 홍채 뒤쪽의 모양체에서 매일 조금씩 생성되며 생성되는 양만큼 순환을 통해 눈 외부로 배출되는 흐름을 갖습니다. 방수가 너무 많이 생성되거나 흐름에 장애가 생겨 배출이 적어질 경우 안압이 상승되어 녹내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월드 리포트

영국 시각장애인 여권 발급 거절당해 논란

영국에서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앓는 여성이 황당한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부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랭커셔에 사는 알렌산드라 카터는 여권을 발급받기위해 관련부처를 찾았다가 황당한 거절 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사진 속에서 무표정을 보이지 않았으며 두 눈동자가 정면을 응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카터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안구진탕증을 앓아 왔습니다. 이 때문에 카터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정면을 응시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카터가 여권발급부서에 제시한 사진에서도 증상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안구진탕증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카터 역시 눈동자를 자신의 의지대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카터는 여권 발급을 위해 담당의사의 진단서까지 제출했지만 결국 거절당했습니다. 이러한 카터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자 리버풀의 여권 발급처 측은 뒤늦게 카터의 발급 신청서를 재심사 한 뒤 여권 발급을 허가했습니다.

제2의 행복한 삶

김미화_시각장애1급 · 경상남도 김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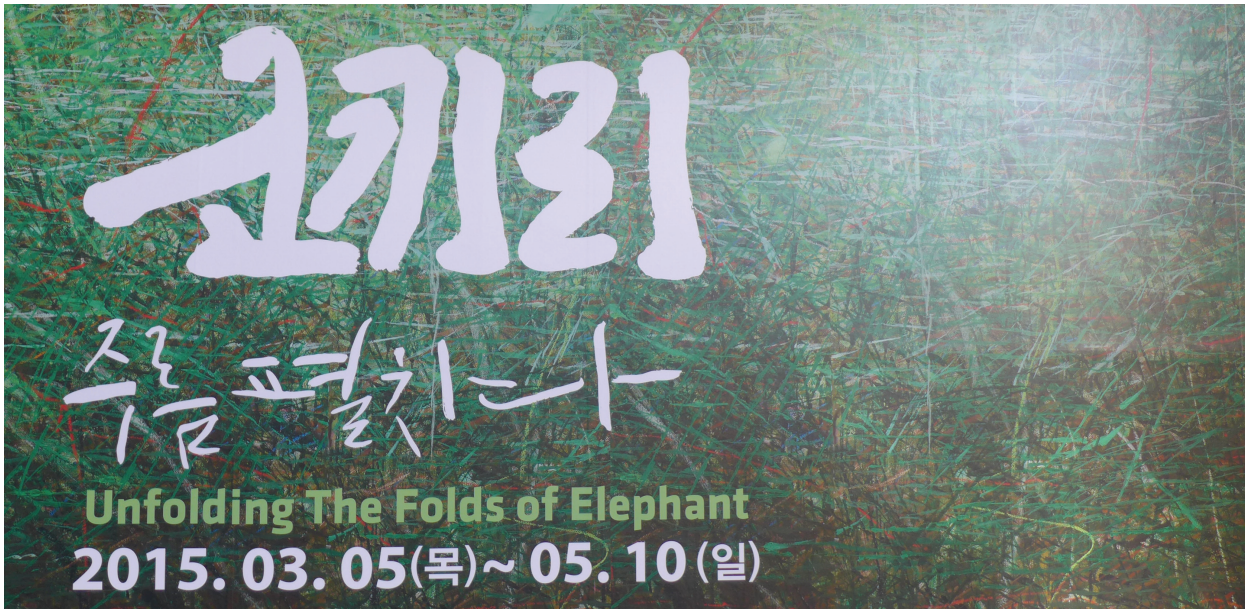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된지도 어느덧 17년이 되어가고 있다. 길다고 생각하면 긴 시간이었고 짧다고 생각하면 참 짧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처음에는 눈도 안 보이는데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할까라는 걱정으로 앞날이 까마득하고 암담하게만 느껴졌다. 그로 인해서 부모님 원망을 비롯해 내 자신을 좌절하고 포기하는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했었다. 이에 우울증이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그때 이런 나를 지켜보던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편치 않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못된 막내딸이었고 철부지였다는 것이 새삼 부끄럽다. 부모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와중에도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미화야 어디를 가든지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기죽고 살면 안 된다. 그럴수록 더 자신감 있게 살아야한다. 알겠지?"라고 용기를 북돋아주셨다. 엄마는 눈이 잘 보여도 전화기 버튼도 잘 못 누르는데 우리 미화는 눈이 안 보이는데도 어쩜 그렇게 전화버튼도 잘 누르고 밥도, 음식도 어쩜 그렇게 맛있게 잘할까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렇게 위로 아닌 위로로 인해 나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때 그걸 왜 몰랐을까 엄마가 돌아가신지 3년이 지났지만 내가 받은 사랑만큼 엄마가 살아 계셨을 때 따뜻하고 다정스러운 말도 많이 못해 드렸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식도 많이 사드리지 못했다는 게 너무 후회스럽고 한숨이 난다.

시각장애인이 된지 17년이 되고 돌이켜보면 시각장애인이든 지체장애인이든지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직도 따뜻하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17년 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된다.

처음에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부끄럽고 무슨 사소한일이라도 하려면 겁부터 나서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눈이 건강했을 때에 관심도 없었던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스포츠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는데 현재는 시각장애인 탁구를 시작한지 약 3개월 정도 되어가고 있고 장애인 가요제에 참가하여 상도 여러 번 받고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자기주장 발표회에서 "가물가물"이란 자작시로 사람들의 마음을 눈물로 적셔놓았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나는 끊임없이 재활을 해야겠다!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웃으며 살아간다. 같은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 때 가끔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것도 참 행복하다고 여유만만하게 너스레를 떨기도 한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서 우울증에 빠져있거나 좌절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 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지지 말고 꼭 용기를 내어 이겨내세요. 용기를 잃지 않으면 어느 순간 눈앞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현실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시각장애학생이 만드는 코끼리!

시각장애인은 시각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촉각으로 많은 정보를 습득합니다. 촉각으로 점자를 읽기도 하고 촉각으로 주위 사람들의 생김새나 물건의 모양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에게 촉각은 매우 중요한 감각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촉각을 이용한 전시가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코끼리 주름 펼치다" 전시회입니다. 코끼리 주름 펼치다 전시회에서는 시각장애학생들이 직접 코끼리를 손으로 만져보고 촉각으로 감지한 코끼리를 직접 조형물로 만든 것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미술교육과 미술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들의 눈에서는 2009년부터 전국맹학교순회아트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시각장애학생들에게 코끼리를 직접 만져보게 하는 잊지 못할 체험을 통해 미술작업을 도전했습니다. 시각장애학생들이 손끝으로 느끼며 만든 "코끼리 주름 펼치다" 전시회는 오는 5월 10일까지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전시실 1에서 실시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01.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요리교실!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안전하게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안전요리교실을 진행합니다.

일반가정의 주방과 유사한 일상생활훈련실에서 요리교실이 진행되는데요. 요리전문강사와 각종 가전제품, 조리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한식, 웰빙요리, 외식요리, 반찬, 손님 초대요리 등 다양한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01.

02. 여러 가지 운동을 안전하고 즐겁게! 스포츠 여가지원사업!

4월이 되면서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날씨가 따뜻해져 운동을 하기 좋아졌는데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유익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스포츠 여가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스포츠 여가지원사업에서는 요가교실, 수영교실, 건강증진교실(피트니스), 등산교실, 텐덤바이크 교실이 진행됩니다. 텐덤바이크는 2인용 자전거로 비장애인 가이드와 시각장애인 선수가 함께 타는 자전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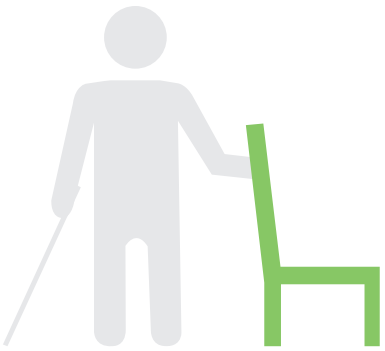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외에도 계절에 맞춰 수상스키교실, 래프팅교실, 스킨스쿠버 다이빙교실, 스키캠프, 가족캠프, 한가위 윷놀이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02.

VOICEYE
voiceye.com

시각장애인에게 의자를 권할 때

시각장애인의 손을 의자의 뒷부분에 살짝 대어 주세요. 의자의 위치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알게 되면 어디에서나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습니다. 책상과 함께 있는 의자에 앉게 될 경우 한 손은 의자에, 다른 한 손은 책상을 닿게 해주시면 바르게 앉을 수 있답니다.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　　상 초 · 중 · 고등학교 및 사회인
내　　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 · 문화체험 등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진행
체험시간 3시간 이내(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상담·접수 02-950-0133 박승만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150-170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T 02.6925.1114　F 02.6925.1117　www.kbuwel.or.kr